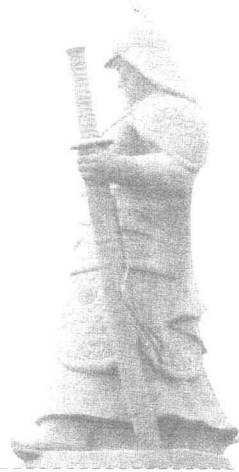


책이 펼친 올해의 키워드,

이순신



미래가 역사를 부른다

●

올해 출판계에서 '전성시대' 혹은 '붐물 터진다'는 말은 이순신 관련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책을 다루는 TV 프로에 출연해 김훈의 《칼의 노래》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한 것으로 시작된 이순신에 대한 관심은 올해 들어 이순신뿐만 아니라 유성룡, 원균 그리고 임진왜란 등 관련 인물과 사건에 대한 소설과 분석서 그리고 만화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순신 열풍은 출판에만 멈추지 않고 드라마 <불멸의 영웅>과 박중훈 주연의 영화 <천군>(4월 개봉 예정),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었다. 400년 전 이순신이 쓴 화살이 2004년을 관통한 것이다.

정조시대의 이순신 유고전집 《이충무공전서》, 신채호의 《이순신전》,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 박정희 시대의 '이순신 성웅 만들기' 등 그동안 이순신에 대한 관심은 지배 이데올로기 강화나 국난 극복의 상징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의 이순신 열풍 역시 그 밑바탕에는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핵심은 역시 '바로보기'와 '다시보기'이다. 기존의 '성웅' 이순신이 '인간' 이순신으로 새로 태어났고, 이순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희생당해야 했던 라이벌 원균은 '졸장'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물론 '차별화되지 않은 이순신 관련서 양산'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국 수호의 상징으로서 미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자체를 바탕으로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실제적 모습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순신 열풍에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대중들의 역사 소비 방식이다. 이는 역사적 사료

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과 맞닿아 있다. 최근 역사학자들은 "역사라는 이름표를 단 서술은 알고 보면 '권력의지'에 의해 구성된 담론일 뿐"이라고 말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사실facts'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훈의 《칼의 노래》가 소설이듯이 박정희 시대의 이순신 역시 '소설'일 뿐이다. 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을 번역한 장문석 씨는 "이제 역사가들의 작업은 과거가 '실제로 어땠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를 개념화하는가'에 집중되었으며,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왜 기억되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라고 역사 서문에서 밝히기도 했다.

아직까지 역사학자들은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허구성을 문제 삼아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 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는 한 독자나 시청자 혹은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현대적 삶을 반성하고 지금 우리 혹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다. 이순신뿐만 아니라 장보고, 칭기즈칸,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종대왕 등 역사적 인물이 CEO의 전형으로 옷을 갈아입은 예를 이미 보아왔다. 이제 출판계도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책에 담을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미래와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글 | 신동섭기자

이순신 열풍을 주도한 책들

이순신 열풍의 진앙은 김훈의 **《칼의 노래》**(김훈, 생각의 나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으로 더욱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김훈이라는 작가의 미려한 문체와 무균질의 영웅 이순신에 대한 미시사(微視史)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 이미 열혈 독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1인칭 서술을 통해 유지하여 전투 전후의 심사, 혈육의 죽음, 여인과의 통정, 정치와 권력의 폭력성, 죽음에 대한 사유, 문(文)과 무(武) 사이의 갈등, 밥과 몸에 대한 사유, 한 나라의 생사를 책임진 장군으로서의 실존적 고뇌 등을 드러내고 있다.

《불멸의 이순신》(김탁환, 황금가지)은 〈허균, 최후의 19일〉 〈나, 황진이〉 〈방각본 살인 사건〉 등을 발표해 온 김탁환 씨가 1998년 4권 분량으로 발표했던 소설을 8권 분량의 대하역사소설로 개작한 책이다. 저자는 10대의 젊은 이순신으로부터 시작해 한 전쟁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순신이 당시의 장수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싸웠던 위기 관리 능력은 바로 그의 성장과정에 연유함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 진짜 적이었던 일본과의 싸움을 사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임진왜란 해전사》(이민웅, 청어람미디어)는 김탁환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강의했던 현역 해군소령 이민웅 씨가 쓴 해전사다. 2002년도 박사학위 논문인 〈임진왜란 해전사 연구〉를 다듬고 보태서 만든 책으로 저자는 순수 전쟁사적 관점에서 이순신은 과연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를 재구성했다. 물론 학술적인 접근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합포해전은 마산이 아니라 진해 앞바다의 전투였다는 점, 명량해전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철쇄는 훗날 만들어진 영웅담일 뿐이라는 점 등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아준다.

《이순신의 두 얼굴》(김태훈, 창해)은 전문가나 작가가 아니라 아마추어 입장에서 썼다는 점이 흥미롭다. 평범했던 인간 이순신이 영웅 이순신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방대한 분량의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사실적으로 파헤쳤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회사, 국가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기대를 읽을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는 **《난중일기》**에 드러난 동료장군과의 불화, 조정과의 갈등,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 등 이순신의 고뇌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읽어낸다.

《난중일기: 임진년 아침이 밝아오다》(송찬섭, 서해문집)은 이미 10년 전 일간지에 **《난중일기》**를 주제로 연재한 바 있는 송찬섭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가 새로 옮긴 책이다. 주요 해전 부분, 일기가 오랜 기간 빠져 있던 부분에 이순신의 장계를 넣었다. 왕게 올린 이순신의 장계에는 각 싸움의 시작과 진행 상황, 싸움에서 공을 세운 이와 잘못을 한 이, 적의 움직임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대중이 좀더 쉽게 읽도록 월별로 주요한 사건을 잡아 제목을 붙여 주었으며 사진이나 해전 상황 지도 자료를 넣었다. 또 큰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싸움 중에 이순신이 장기간 일기를 쓰지 못한 때에는 장계와 주를 적절히 삽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

〈섭〉

